

청와대 이웃주민 초청 간담회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면 좋겠습니까? 예전에는 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반상회라고 하니 주민여러분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까?

98년 7월 선거에서 저를 종로 국회의원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주셨습니다. 종로 국회의원이 되니 여러 곳에서 대접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구를 옮겨 부산으로 가기 위해 종로 구청 대강당에서 여러분들과 작별인사를 했었습니다. 속으로 욕심과 계산도 있었습니다. 부산 가서 당선되면 대통령 하겠다는 속셈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가서였는지 떨어졌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 여기서 모십니다. 이 자리에, 여기 서게 된 것 여러분 성원 덕분입니다. 종로가 특별한 정기, 힘이 있는 곳 같습니다. 그래서 청와대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종로 출신 국회의원이 대통령 됐으니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십시오. 꾸짖을 때 꾸짖더라도 애정으로 도와주셔야 잘할 것입니다.

식사 끝나고 사진을 동별로 찍는데 나중에 볼수록 좋은 사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에서 뜻 깊은 저녁 오래 기억하고 싶습니다.